

사람들 사이에 섬이 되고픈 화가, 이철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나는 이철수 선생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다. 당시 나를 비롯한 방송국 스태프들은 선생을 보고 적잖이 당황을 했다. 소박한 생활한복 차림인 선생의 입에서, 생방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 냄새가 향기롭게(?)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그런 우리의 표정을 보고 선생은 아침 햇살을 타고 졸졸 흐르는 개울물 같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내게는 이렇게 읽혔다. ‘이 술 냄새가 설마 청취자들에게 전해지지는 않겠죠? 뭐. 전해지면 청취자들도 한 잔 하면서 내 얘기를 들어도 좋고요. 술 취한 그만큼 자유롭고 편안하지 말입니다. 예술가란 원래 뭐에 취하기 좋아하잖아요.’

선생은 올해도 15년째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충북 제천에 살고 있다. 270평이었던 논밭이 이제 3천여 평으로 늘었지만, 아직도 농약 없이 청정농사를 짓고, 잘 된 농사는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선생의 그림과 글은 바로 그 ‘나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세상을 따스하게 보려는, 세상에 취하려는 그 마음가짐은 가난한 문학소년 시절부터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그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권위적인 현대미술에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러나 보니 영수증 뒤에 당신의 판화 그림을 넣어 재활용을 하게 하는 파격적인 작품도 서슴지 않고 제작한다. 이런 선생에게는 주위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한다. 누구나 선생님의 작품을 갖게 되는 건 좋겠지만, 그렇게 흔하다 보면 작품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냐고. 선생은 망설이 없이 대답했다고 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보면 좋지 않느냐고. 아니, 오히려 지금보다 더 생활 속에 깊숙이 나의 작품이 스며들었으면 좋겠다고.

예술이 점점 더 상업화되고, 예술가들이 돈의 굴레에서 더 많이 자유롭지 못한 세상에서 선생의 이런 마음은 얼마나 아련한 향수로 다가오는가. 손수 농사를 짓고 그 결실을 나누어 가지는 생활과 예술이 선생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다.

글 / 한잼마

출처 / 명진출판 <나는 그림에서 인생을 배웠다>